

2024. 5. 7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

문화재정책과 과장	홍우석	2133-2610
문화재정책팀장	이준봉	2133-2612
담당자	박나운	2133-2616
관련 홈페이지	http://www.seoulmaster.co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5매

'전통 붓과 현대의 만남' 서울시 무형문화재 필장(백모필) 공개행사

- 옛 선인들의 기개의 상징이자 기품을 그려내는 다양한 전통 '붓' 전시
- 9일(목) 100여 번의 손이 가는 전통 '붓' 제작 과정 공개
- 전통무형유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관람 가능

- 서울시는 5월 서울시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문방사우(文房四友)의 하나인 다양한 붓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. 예로부터 붓은 권력에 맞서 바른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선비의 기개를 상징함과 동시에, 시와 그림을 즐기는 옛 선인들의 멋과 기품을 드러내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다.
- 붓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개시연행사는 5월 9일(목) 오후 14시~16시에 서울시무형문화재 돈화문교육전시장(종로구 율곡로 10길 13)에서 진행된다. 붓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작 도구와 붓 재료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5.1.(수)~5.25.(토)까지 개최된다.

- 필장은 문방사우(文房四友)의 하나인 붓을 만드는 사람 또는 기술을 말한다. 붓은 털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, 첨(尖)·제(濟)·원(圓)·건(健)의 네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. 이는 붓끝이 뾰족해야 하고 가지런해야 하며, 털 윗부분이 끈으로 잘 묶여서 둥근 것, 오래 써도 힘이 있어 한 획을 긋고 난 뒤에 붓털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.
- 털의 재료로는 염소(백모)·여우·토끼·호랑이·사슴·이리·개·말·산돼지·족제비 등의 털이 사용되며, 붓의 대는 대나무를 많이 사용한다. 제작과정은 우선 털을 고르게 한 후에 적당량을 잡아 말기를 한다. 털끝을 가지런히 다듬는 ‘물끝보기’ 과정을 거친 뒤 대나무와 맞추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은 100여 번의 손이 가는 고단한 과정이다.
- 백모필은 주로 염소털을 이용해 만드는 붓으로,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된 어린 숫염소의 털을 최고의 재료로 치는데,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필장 중 백모필을 제작하는 전상규 보유자의 기술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. 전상규 보유자는 필장(백모필)의 기술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2018년 1월11일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다.
- 전상규 보유자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 붓을 연구하고, 국내 전통 재료와 전통 기법으로 사라져 가는 붓을 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.
 - ‘전통 붓과 현대의 만남’이라는 전시 주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상규 보유자는 전통기법과 재료를 유지하되 현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붓을 연구하며, 한국 전통 붓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.

-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는 전통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별도 신청없이 관람할 수 있다. 공개행사의 상세일정은 서울시무형문화재 돈화문교육전시장(☎02-742-6444)으로 문의하면 일정,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전통 붓의 구매도 소개받을 수 있다.

- 홍우석 서울시 문화재정책과장은 “서울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시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공개행사가 있는 달마다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우리 전통무형유산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: 공개행사 포스터 각 1부.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필장[백모필]
White Fur Brush [Baekmopil]

보유자 전상규
Jeon Sang Gyu



백모필

- 백모필 공개행사 -
전통 붓과 현대의 만남
5월 9일(목) 14:00~16:00
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

2024. 5. 1(수)
~ 2024. 5. 25(토)
10:00 - 17:00 [매주 월요일 휴관]

문의 (02)742-6444



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
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



한문붓



한글붓



사군자붓



민화붓



갈필, 죽필, 고평



전통 10가지 재료 붓